

PV 최신 소재 Trend 세미나 설명자료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프르미에르 전시회를 통해서 여러분께 필요한 새로운 트렌드 정보를 수집하셔서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릴 시즌은 2017 년 S/S 시즌이며 소재트렌드, 소재패턴, 컬러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오늘 설명 드리게 될 이미지들은 저희 넬리로디사에서 2017 년 S/S 시즌 트렌드로 준비했던 자료입니다.

오늘 프르미에르 비지웅 첫날이라 제가 이 세미나에 오기전에 먼저 잠깐 포럼관을 돌아봤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예측한 트렌드와 많이 일치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방향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예측한 테마중에 첫번째가 '테라노바'인데 이것은 '신세계'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 신세계라는 컨셉은 미래주의적인 이미지를 가지면서 은하계하고 관련되어 있고 테크놀로지적이면서 공상과학쪽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기존하고 다른것은 조금 로맨틱티즘적인 즉 낭만적이고 시적이면서 인간주의적인 면이 합쳐져서 새롭게 제안됩니다.

(영상)

방금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미래로의 여행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미래로의 상상의 이미지가 강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부드러운 여행의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컬러감인데 테크놀로지에서도 영향을 받았지만 스킨컬러의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누드컬러, 베이지컬러들 약간은 미래지향주의적인 베이지 컬러를 보여줍니다. 세미나 이후 프르미에르 비지웅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런류의 컬러들을 확인하시게 될 것인데, 지금 제일 위에 보여지는 베이지 컬러 그 다음이 약간의 핑크, 오렌지가 이번 프르미에르 비지웅 전시 컬러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제안하는 컬러는 하늘 그 다음이 은하계하고 관련된 컬러이고 영상에서 보시듯 두개의 스카이블루 컬러들 맨 아래에 보이는 행성이라고 되어 있는 터어키석 블루(청녹색)이 이번 프르미에르 비지옹에서 제안하는 컬러들 입니다. 따라서 이 테마에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컬러들 그리고 화려한 비비드한 컬러들까지 포함되며 다크한 컬러들은 이번 시즌에서는 제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테라노바라는 신세계 컨셉에서는 네가지 키워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컨스킨, 행성, 사이버 3D, 그리고 약간 어두운 면이 있는 다크사이드 입니다.

첫번째로 세컨스킨 테마를 보실수 있는데 1 만분의 1 이라는 세포의 느낌까지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안하는 소재는 굉장히 얇고 폴리에스테르의 느낌하고 마이크로파이버 느낌의 소재들이며 이것이 우븐이든 아니면 니트 저지든 세컨스킨의 느낌으로 피부 세포처럼 느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미지에서 보시듯 굉장히 얇고 비쳐지는 시스루 처럼 보이지만 섬유의 질감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피부를 보면 혈색이 보이듯이 이런 느낌을 살리는것이 소재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오렌지, 베이지, 핑크 컬러가 다 스킨컬러에서 파생된 연결된 컬러감입니다. 이런 컬러감들은 액티브 스포츠웨어나 란제리쪽에서도 중요한 컬러로 적용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이미지에서 보시듯이 프린트에서는 좀 더 현대적이면서 행성에서 느껴지는 기하학적 패턴으로 제안됩니다. 이런 느낌은 여러분이 프르미에르 비지옹 전시 제너럴 포럼관에 가시면 약간은 그라데이션적인 느낌, 쉼도우 즉 그림자 느낌의 프린트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 이미지에서도 여전히 비치는 시스루적인 투명감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반사감이 있는 약간 진주 펄 느낌의 광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컨셉에서는 신세계라는 은하계에서 영향을 받아 소재의 표면감이 마치 행성 폭발을 하는 느낌으로 입체감이 있습니다.

이번 프르미에르 비지옹 가서서 제너럴 포럼관을 보시면서 특히 중요하게 여길점은 소재에 입체감이 많이 적용되었다는것을 보실 수 있을겁니다. 이 입체감이라는게 너무 과장된것만 있는것 만은 아니고 어떤면에서는 소재의 표면감을 다양하게 다루기 위한 노력이 보입니다. 다음 소재의 표면감의 특징은 메탈광택, 슛컬러 효과 그리고 프린트 자카드인데 파우더를 바른듯한 느낌과 그라데이션 느낌이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너럴 포럼관으로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트렌드 자료는 저희가 6 개월전에 트렌드 예측하기 이해서 준비했던 자료라 프르미에르 비지옹에서 제시한 소재 경향과 모두 일치하지는 않지만 연결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입니다.

그 다음에는 3D 느낌, 볼륨, 이것은 새로운 것은 아니고 지난 시즌부터 계속 된 것인데 이번 시즌에도 지속됩니다. 이번 트렌드에서는 규칙적인 릴리프 즉 양각느낌 보다는 불규칙적인 릴리프(양각)가 새로운 트렌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굉장히 스포츠웨어적인 이미지인데 유연성있게 접근하고 있다는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2017 S/S 의 프린트의 특징은 굉장히 맥시 즉 큰 패턴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미지에서는 신세계, 미래주의적인 테마이기 때문에 맥시하게 미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비정형적인 스트라이프를 표현하듯이 소재의 표면감이 많이 다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이 테마에서 잘 표현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소재의 표면감을 많이 다루었다고 했는데 특히 이 테마에서 표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는 소재가 이번 프르미에르비지옹에서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소재입니다. 크레이프라던지 크레퐁 또는 핀턱을 넣은 굉장히 소재의 표면감을 살린 릴리프 즉 양각 효과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턴에 있어서는 에스닉하면서 칼리데스코프(만화경)를 섞어서 현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포럼관에 가보시면 에스닉이 맥스 즉 크게 표현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이 미래주의적이지만 여기에서도 여성적인 소재 즉 레이스, 란제리 소재가 많이 다뤄져 있습니다. 그 다음이 두번째 컨셉인 트로피칼 같은 적도의 느낌인데 굉장히 환상적이며 기이한 트로피컬 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

여기 컬러를 보시면 트로피칼의 느낌을 살린 비비드한 컬러가 사용되었고 마치 정글안에 들어간 듯한 다크한 컬러들과 함께 매칭되어 보여줍니다. 지금 프르미에르비지옹 컬러를 보면 레드계열과 핑크계열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 오피움 컬러, 카르니봇 핑크 컬러(육류빛 핑크) 그 다음에 카나리아 그린 컬러가 이번 프르미에르비지옹 컬러와 일치합니다. 두번째 컬러감에서는 여전히 비비드한 컬러들인데 블루컬러, 그린컬러, 핑크컬러 계열끼리 제안되고 있습니다. 하이비스커스(무궁화계열), 레드빛 아라, 보라빛 오키드 컬러가 프르미에르 비지옹에서 제안하는 컬러들이며 더 많이 보여지는것이 레드와 핑크 계열입니다. 이 컬러 테마는 프린트 패턴에서 중요한 테마입니다.

두번째 컨셉인 정글 야생곡에 대해서 설명하겠는데 키워드는 글래머러스 포이즌, 트로피칼 보헤미안, 트라이벌 마사이 이며 그래서 이 컨셉은 수영복이라든지 스포츠, 칵테일용의 프린트에 더 맞는 테마입니다. 자연이라든지 정글숲의 깊이 있는 느낌에서 영감을 받은 동물의 껍질, 등껍질에서 영향을 받은 소재들입니다. 마치 물에 젖은 듯한 광택감이 있고 즉 물에 젖은 듯한 레커 코팅이 있으며 이 테마는 모든 소재에서 후가공이 중요합니다. 코팅 즉 여기에서 카라파스라고 하면 등껍질 표면을 의미하는데 식물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곤충이나 동물에서 영향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이브리드한 복합적인 섬유질감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 테마에서는 트로피칼한 정글이 많이 다루어지고 그 다음이 새들 입니다. 패턴 모티브에서는 기존하고 다르게 미스터리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상의와 셔츠 소재를 제안하는 포럼관에 가시면 새를 다룬 프린트가 많이 제안된 것을 보실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트로피칼한 프린트가 핸드 프린트로 표현되어 실키한 느낌의 소재들에 많이 제안된 테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각테일의 느낌을 살린 세틴, 크림세틴 또는 쉬폰 굉장히 우아하면서도 여성적인 분위기의 소재들이 제안됩니다.

이 테마에서는 다음 중간에 보시는 피트된 실루엣을 위해서 마치 수영복과 같은 스트레치 소재성이 들어가는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젖은 소재를 모방한 듯한 광택을 표현하는것도 중요하고 자카드지가 정글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식물 패턴으로 제안되며 엄청난 크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면에서는 과장된 느낌까지도 주는데 여기 컬러 사용을 보시면 다른색을 섞지 않고 같은 색감끼리 어울림을 줘서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목할 것은 펠효과인데 비비드 컬러에 메탈감을 넣어서 펠 효과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에서는 보헤미안 컨셉이 들어가 있습니다. 트위드 소재위에 트로피칼적인 컬러를 좀 더 부드럽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쉬폰, 번아웃을 한 식물패턴을 사용하고 있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음은 꽃, 새 같은 정글에서 볼 수 있는 트로피칼 패턴이 페인팅하듯 자유로운 느낌으로 아티스틱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프린트에서 작은 앵무새 등 역시 프르미에르 비지옹 포럼관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재의 느낌의 확 달라지는데 그것은 스포츠 소재가 제안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컨셉 사이코 트로픽스에서는 우아한것도 이 소재에 적용될 수 있고 여성적인것도 적용될 수 있으며 스포츠까지 적용됩니다. 여기에서는 양각의 느낌을 더욱 기하학적이며 아까 보셨던것 입체감이 보다 규칙적임을 보실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사이에서 영향을 받은것인데 약간 원시 부족의 느낌이 들고 스포츠웨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에스닉, 트라이벌 즉 부족적인 느낌이 드는데 핸드페인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포럼관에 가시면 유사한

패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 컨셉은 저희가 명칭한 '플레이 데이트' 라는 오후에 편하게 갖는 데이트를 의미합니다. 이 테마에서는 좀 차일드쉬 즉 유아적인 느낌이 들어가고 여성적이지만 유희적으로 다루어집니다.

(영상)

여기 보시면 컬러가 굉장히 부드러우며 마치 아동복을 연상시키듯 즉 신생아의 느낌을 갖는 부드러운 컬러로 동시에 스칸디나비아식 디자인과도 연결되는 그런 컬러들입니다. 약간 귀여우면서 순진한 느낌이며 프르미에르비지옹에 중요하게 보여지고 있는 컬러로는 탄력성있는 베이지 컬러와 베이비 블루 프르미에르비지옹 컬러 레인지를 보면 스카이 블루가 많습니다. 다음이 약간 보라빛이 들어가는 그레이 접시꽃 빛깔의 모브 컬러가 있습니다.

두번째 컬러 계열은 비디오 게임에서 영향을 받는 컬러들입니다. 다음에 캔디컬러, 테트리스 레드라는 맨 위에 두 컬러로 레드와 오렌지가 프르미에르비지옹에서 제안되는 컬러들입니다. 이 컨셉 4 가지 키워드를 제시해 드리면 첫번째는 90 년대 영향을 받는 클린, 깨끗함 두번째는 스포츠라고 부르지만 훨씬 귀엽고 사랑스럽고 순하게 접근하며 '글리치' 컴퓨터 화면이 흔들릴 때 나오는 글리치함 즉 약간은 형태가 무너진 듯한 패턴 제안입니다.

다음은 이모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 테마는 이미지에서 보셨듯이 캐주얼하고 베이직해 보이지만 편안하고 일상 생활 웨어에 해당되는 그런 테마입니다. 기본적인것에서 약간의 작은 디테일을 가지고 차별화됨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샴브레 즉 샴베, 모직등 기본적인 소재인데 고의로 소재 표면에 약간 불완전한 느낌을 넣는다든지해서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컨셉에서 부터 소재 표현에 있어 입체감이 이번 시즌 트렌드에서 많이 강조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 베이직한 소재에 있어서도 작지만

팬시한 면이 소재 표면에 표현되고 있고 컬러적인 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신 이미지에서 느끼셨겠지만 코튼과 폴리에스테르, 폴리아미드, 합성소재에 있어서 중요한 테마입니다. 진이라든지 페이크 진 효과 워싱아웃 효과, 패턴에 있어서도 비디오 게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약간 게임 느낌이 80 년, 90 년대의 레트로 게임 느낌으로 패턴 역시 거대한 기하학적 패턴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소재에 있어서 코튼이든 폴리에스테르든 텐셀이든 미니 구조모양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벌집모양, 피케 즉 찹은듯한 이런 조직감이 보여지는데 이것 역시 포럼관에서 많이 보고 왔습니다.

미니스트럭처 즉 작은 구조적모양은 극소 모양으로 나노 까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간단하게 보기에는 굉장히 평평해 보이지만 굉장히 나노 느낌의 미니 스트럭처가 들어가 있고 스포츠와 란제리에 있어서도 조금 더 소프트한 컬러들이 적용되서 부드럽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 글리치 라고 말씀 드렸는데 여기 패턴에 적용되고 있네요. 이미지가 변형된 것 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프린트로도 들어갈 수 있고 자카드든지 직조로도 제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동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소재의 표면감에 있어서는

이전에는 패턴에 있어서 조금 더 평평하게 들어갔지만 여기는 크로킹을 넣어서 더 과장하고 있습니다. 코튼 즉 가벼우면서 볼륨감 있는게 특징이며 프린트에 있어서는 3D 느낌의 프린트로 얼룩느낌, 픽셀 느낌이 패턴으로 제안되고 팬시한 느낌이 들어가는 소재들 특히 자카드. 자수, 번아웃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단순하게 크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콤팩트한 소재들에 관련된 것인데 밀라노 저지, 콤팩트한 저지로 컬러가 심플하게 적용되어 있으며 좀 더 편한 느낌의 패턴 제안입니다.

다음은 스티커 느낌, 여행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사바나 즉 아프리카로의 여행이며 식물의 세계를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영상)

지금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사파리 여행입니다. 두 번째 컨셉에서는 정글이지만 여기서는 훨씬 건조함을 보여줍니다. 약간 사파리 느낌의 그런 밀리터리 느낌이 들어가고 컬러는 영양, 나무, 뿌리 여기에 영향을 받은 컬러들입니다. 아니면 굉장히 건조한 식물들 즉 선인장 이라든지요. 첫번째 테마는 그래픽한 컬러들이 제안되어 있고 도시적입니다. 두번째는 훨씬 더 부드러운 컬러감입니다. 프르미에르비지옹에서 베이직 컬러, 어스 컬러, 카키 컬러 그 다음 핑크 '부슈' 불리는 컬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컬러 이미지에서는 네개의 키워드가 있는데 첫번째는 럭셔리 캐주얼, 두 번째는 숲, 세 번째는 야생적인 네 번째는 선인장입니다. 키워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식물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는 컨셉입니다. 따라서 소재에 있어서는 린넨, 코튼, 햄퍼, 마와 같은 물론 식물과 연관된 소재들도 있지만 페이크된 소재도 가능합니다. 즉 천연소재를 모방한 페이크 소재로 눈으로 보시면 식물성 섬유의 느낌을 살린 소재들이고 여기 보시면 재킷, 트렌치 중량 소재들입니다.

가벼운 블라우스감은 아니고 굉장히 섬유 질감이 있고 불꽃같은 외관을 볼 수 있으며 워시드 아웃된 린넨이며 여러분이 오른쪽에 보신 소재는 데블페이스이며 상당히 중량감이 있고 콤팩트한 느낌인데 여기서 보시면 약간 불규칙적인 표면감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폴리아미드하고 폴리에스테르를 조금 더 러스틱하게 다루어졌고 그 다음에는 숏컬러 효과, 버튼 효과, 약간의 불규칙한 효과를 주며 프린트에 있어서는 여전히 식물에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나무껍질 느낌이라든지 지푸라기 느낌으로 내추럴하고 시골의 느낌이 도시적으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든지 라피아 야자수같이 와서 같은 페이퍼가 가능합니다.

네번째 컨셉은 내추럴하고 식물에서 영향을 받고 그래서 러스틱하게 출발은 하지만 이것이 시골스럽지만은 않고 소재가 다시 손질된 부분이 많이 있으며, 타이트하게 짜여지든지 잘 만들어졌다든지 우아한 소재로 해석했다든지 오른쪽에 보시는 소재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추천하는 소재들입니다.

이것을 저희는 샌드 효과라고 하는데 약간의 오돌도돌한 느낌이 있는 소재로 여기에 레이스, 폴리에스테르 그런 쉬폰 느낌이고 메탈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블라우스라든지 좀 유연한 소재들에 패턴에 있어서 수공적인 부분이 프린트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테마는 사파리에서 영향을 받은 동물 패턴입니다. 동물패턴을 이용하시려면 동물을 죽이면 안됩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 얼룩 효과 즉 자카드, 프린트, 번아웃등 여기 보시면 동물 문양인 지브라 패턴이고 이것을 좀 더 핸드 프린트적으로 다루었는데 훨씬 자이언트하고 아티스트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동물 패턴은 좀 더 작게 다루어진 예입니다. 란제리, 스커트등 여름에 간단하게 입을 수 있는 원피스 또는 조금 데일리한 버전으로 편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컬러는 저희가 이 컨셉에서 제안했던 소프트한 컬러들입니다. 식물 껍질의 느낌을 모방하든지 식물느낌이라든지 대나무 결을 표현한 소재들입니다. 자수하고 깊이있는 패턴에 있어서 식물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린트 패턴에 있어서도 여전히 사바나 영향으로 손으로 그린 듯한 느낌이며 2017 S/S 에 있어서는 핸드프린트 느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중간색을 사용하고 있고 중간색과 인디고를 섞어서 사용해서 마치 이 느낌은 여행하면서 간단하게 여행수첩에 그리는 그림의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컬러가 프르미에르비지옹에서 제안하는 컬러들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레드 계열이 많고 굉장히 따뜻한 느낌의 카멜, 레드, 핑크 계열이 많습니다.. 제가 테마 설명드리면서 컬러를 찍어 드렸는데요. 배열되는 방식은 좀 다릅니다 중간에 보시는 컬러들 모브 컬러에서부터 바이올렛 컬러들 여기에 카키 그 다음에 블루끼리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비비드 컬러하고 파스텔 컬러를 배색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플레이 데이트' 느낌입니다.

테라노바 테마에서 블루 그라데이션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설명드린 컨셉하고 연결시킬수 있는데 컬러 배열이 다를 뿐입니다. 이렇게 2017 년 S/S 중요한 소재 트렌드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이해가 되셔서 프르미에르 비지옹 보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르미에르비지옹에서 주의해서 보셔야 될 방향들을 잡아드렸고 잠깐 요약해 보면 전반적으로 소재 표면감이 불규칙한 점이 많이 보이며 그 불규칙한 점이 러프하게 가는게 아니라 세련되게 불규칙함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자카드를 보시면 실을 잘라서 표현된 것이 많이 있고 예전에는 완벽하게 하기 위해 부연되는 소재로 표현되었다면 이제는 마치 불완전한 면을 앞으로 내세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재에 있어서 어떤면에서는 상당히 인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표현은 특히 프린트에 있어서 손으로 그린듯한 표현이 많습니다. 마치 낙서나 붓의 느낌을 표현하듯이 소재에 있어서도 합성소재든 테크놀로지가 가미된 소재 즉 스포츠 소재까지도 약간의 불완전한 면을 넣어서 마치 소재위에 영혼이 존재하는 느낌으로 민감한 소재의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분들은 프르미에르 비지옹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혹시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각 관이 소재의 특성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번째가 가죽관인데 이곳에도 트렌드를 알려주는 포럼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재의 입체감 또는 컬러감을 보는데 중요하니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선염이나 폴리에스테르쪽 이시면 가죽관과는 관련 없겠지만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니 방문해 보십시요. 다음은 이 세미나룸 입구에 있는 4 홀입니다. 여기에는 버튼, 레이스등 옷을 만드는 부자재관입니다. 이 부자재관에서도 포럼관이 있는데 이곳에서 보시면 테크니컬한 면도 참고할 수 있고 예를들면 어떻게 짜여졌는지 레이스라든지 기궤르라든지, 소재효과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니 꼭 부자재쪽에

종사하시지 않더라도 포럼관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5 홀 인데 제가 이 세미나에 오기 전에 갔던 포럼이며 여기는 상의와 셔츠에 관련된 포럼관입니다. 이곳에서는 경량감의 소재 즉 셔팅에서 부터 저지 그다음 프린트물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새라든지 에스닉한 손으로 그린듯한 느낌의 패턴들이 많이 보여졌던 곳이 바로 이곳 입니다. 다음은 남성 셔츠쪽으로 갔더니 도비, 자카드에 있어서 약간 새롭게 해석한 셔츠들이 많이 보였는데 기존의 클래식했던 것이 여성적인 방향으로 많이 제안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브닝 포럼관 인데 실키한 소재들과 우아하 소재들이 많이 제안됩니다. 그 다음에 자카드를 이 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몇 시즌 전 부터 자카드 소재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카드가 상당히 콕테일용 웨어에 적용되던것이 이제는 점점 일상복용 자카드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스라든지 기퀴르라든지 모든 실크라든지 실키 관련 소재들을 볼 수 있는 작은 포럼관이 있습니다.

이쪽은 시간이 없어서 오늘 아침에는 가보지 못하고 왔는데 이 관은 중요한 소재와 실루엣을 연관시키는 포럼관입니다. 즉 이 소재로 어떤 실루엣을 만들수 있을까를 제안하는 포럼관입니다.

여기는 테크 포커스로 모든 합성소재들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3D 저지라든지 폰백이라든지 모든 테크놀로지의 영향을 받은 스마트 소재들을 볼 수 있는곳인데 여기도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소재 선택에 있어서는 어디 한 특징을 연관시키는게 아니라 일반적인 소재들을 제안합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소재들을 제안하기 때문에 어떤면에서는 조금 과장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시즌보다 상당히 아름다운 소재들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바나로 표현을 했던 지푸라기라든지 굉장히 거친 느낌의 코튼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좋은 퀄리티로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포럼이 아니고 작은 전시로 메종텍셉션이라고 하는 특별관입니다. 최근에 시작된 전시로 1 년에 한번 열리며 일본, 이태리, 프랑스의 장인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10 개의 업체를 만날 수 있으며 최고급 럭셔리 브랜드 바이어들을 위한 최고의 수공 원단, 천연소재 및 염색, 최첨단 기술의 원단을 소개하는 곳입니다. 전시회에 나온 업체들과는 일하기 힘들겠지만 참고 하실만한 요소가 많은곳이니 방문해 보세요. 이쪽은 데님관이 있고 그 다음 메뉴랙처링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럼관이 있는데 겨울이 더 중요한 아우터 소재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 홀에 디자인관이 있는데 이 관을 인디고관이라고 이전에 불렀고 지금은 디자인관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텍스타일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독점 프린트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얀 즉 실을 볼 수 있는 관이 있습니다. 제 설명으로 여러분이 프르미에르 비지옹을 방문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서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설명은 여기까지고 실제로 방문해 보시면 굉장히 넓으므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부터 선택해서 보시고 가죽관까지 둘러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좋은 전시회 관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끝)